

번호 01-4

제 목	국문	보건의료제도와 의료보험에 관한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 고찰			
	영문	How Koreans perceive the health care system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: a report from a national survey			
저 자 및 소 속	국문	배성윤, 문옥륜 (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)			
	영문	Sung Yoon Bae, Ok Ryun Moon (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)			
분 야	보건관리(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)	발 표 자	일반회원(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)	발표 형식	구 연(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)
	역 학( )		전 공 의( )		포스터( )
진행 상황	연구완료( ), 연구중(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) → 완료 예정 시기: 99년 10월				

**1. 연구 목적**

전세계적으로 보건의료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, 주요 선진국에서는 선거 및 주요 정책변동에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변동의 평가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합리적 정책형성의 주요한 통로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실시된 '보건의료제도와 의료보험에 관한 전국여론조사'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만족수준과 제요인에 대한 시간적 변동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보건의료분야에서의 '비교여론분석(comparative public opinion)'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

**2. 연구 방법**

본 연구의 목적인 '보건의료제도와 의료보험에 관한 전국여론'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민 중 20세 이상 성인 남녀 1,013명을 지역별로 성·연령비례할당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 추출한 후, 1999년 1월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 설문조사는 (주)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였다. 설문조사에 사용된 문항 중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내용은 Blendon 등의 연구(1989, 1990), Missialos의 연구(1997)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을 번역하여 사용하였고, 기타 의료보험관련질문은 자체 개발하였다. 만족도 등 주요 설문은 Likert 5점 척도를 주로 이용하였고, 분석에는 SAS통계팩키지(version 6.12)를 이용하였다. 본 설문조사의 표본오차(sampling error)는 95%의 신뢰수준에서 ±3.1%였다(1999년 9월에 실시할 예정인 2차 전국민 여론조사도 위와 동일한 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임).

**3. 연구 결과**

- 1) 지난 '99년 1월에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,013명을 대상으로 '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'를 조사한 결과, 응답자 중 28.7%가 '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, 만족하는 비율(23.4%)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반면, '보건의료제도의 일부분인 의료보험'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비율이 33.7%로 불만족(28.5%)하는 비율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. 한편, 보건의료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6.5%가 '좋은 점도 일부 있지만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'고 답하였고, '약간의 변화만 있으면 되겠다'고 응답한 비율은 36.2%, '매우 형편없어서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한다'고 응답한 비율은 7.7%로 나타나, 국민들 대다수(90.4%)는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보건의료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- 2) 정부의 의료비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국민들 중 68.7%가 '예산지출을 늘려야 한다'고 응답한 반면, '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'와 '줄여야 한다'는 의견은 각각 23.1%와 8.2%에 불과하였다. 그러나, 정부가 예산지출을 늘려야 할 경우 그 재원마련방법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6.1%가 '다른 부문의 예산삭감을 통해서 보건의료부문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'고 답한 반면, '세금이나 보험료의 인상을 통해 의료비 예산을 늘려야 한다'고 답한 사람은 16.2%에 불과하였다.

- 3) '국민 각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의료보험조합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'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.7%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, 반대는 9.6%에 불과하였다.
- 4) 2000년 1월부터 의료보험이 완전통합되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 중 절반정도 (50.8%)는 '통합이 바람직하다'고 여기고 있는 반면, 23.6%는 '분리운영해야 한다'고 답했으며, '잘모르겠다'고 한 응답자도 25.6%에 달했다.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자영자 소득과약의 문제로 인해 봉급생활자가 보험료부담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5.2%로 가장 많았으며, 완전통합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로는 '의료보험혜택을 늘리기 위해서'가 41.2%로 가장 많았고, '관리운영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'가 35.0%로 그 뒤를 이었다.
- 5) '의료보험을 완전통합하기 전에 시범사업 실시가 필요한가'라는 질문에 '필요하다'가 75.1%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, '필요없다'고 응답한 비율은 11.5%에 불과하였다. 시범사업의 기간에 대해서는 56.1%가 1년, 20.7%가 2년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.
- 6) 의료보험 완전통합후 재정을 분리운영할 경우, 관리기구의 통합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.7%가 '조직도 통합해야 한다'고 응답한 반면, '분리운영해야 한다'와 '잘모르겠다'는 각각 22.7%와 22.6%로 나타났다(기타 99년 9월에 실시할 전국민 여론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변화양상을 분석할 예정임).

#### 4. 고찰

보건의료제도와 의료보험에 관한 전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, 보건의료제도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더 높았으나,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. 그러나,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이태리, 그리스 등과 함께 우리나라는 '보건의료제도에 만족하는 국민의 비율'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, 실제로 국민들 중 '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나 완전히 재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의 비율'은 우리나라가 54.1%로, 그리스, 이태리, 포르투갈 등을 제외하고는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다. 의료보험의 완전통합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중 51% 정도가 찬성하는 한편, 75%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통합하기 전에 약 1-2년 정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반면, 의료보험조합의 자율적 선택에 대해서는 75.7%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의 해석에 다소 이견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(기타 논쟁점과 최근의 여론변동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할 예정임).